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발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집착을 놓으면 땀소멸 道가 됩니다

우리가 모습으로 친다면 그저 이 선원에 이 한자리지만은 마음으로 친다면 이 한자리를 우주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을 크게 쓰시면 큰 것이고 작게 쓰시면 작은 것입니다. 작게 쓰고 크게 쓰고 크게 벌여지고 작게 쓰면 작게 벌여져요.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여지거든요.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

게 한자리가 이어진 것은 과거라고 칠 것도 없지만 과거의 인연으로 미래의 인연을 만들고 미래의 인연으로 인해서 또 현실의 인연을 돌 아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질문할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때도 어떠한 큰 것을 해야겠다 작은 것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마십시오. 인간이란 생활 속에서 항상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땀의 원인과 道의 이치

르스님, 법체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선원의 신도 박규환입니다. 저는 늘 르스님의 크고 높으신 가르침에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苦)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만나야 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생로병사와 고의 원인은 집착에 있고 이를 떨치면 도에 이르고 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중생들은 바깥이나 안에서 오는 고의 경계가 끊임 없이 나타나서 여기에 집착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르스님의 가르침대로 놓고 관하면서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놓고 관하면 고의 원인이 밝혀지는 원리와 도에 이르는 이치를 저와 대중을 위하여 설명하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옵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팔자운명이니 뭐 이런 것에 끌려다니 살겠지요. 그러나 이 마음공부를 하고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자기도 마음을 허탕하게 쓰는 것도 자기입니다.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옹고 그런 것, 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다 알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과 고가 아니다 하는 것이지 고가 본래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라고 한 것은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승화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데를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그 처참하고 갈 길이 없어서 절망하고

이렇게 해보지 못했다면 어려운 일이 닦았을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이 자기를 공부시키는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그걸 안다면 끄달리지 않게 되고 끄달리지 않음으로써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고(苦)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 문득문득 어려운 시절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처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로서는 처참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도 감사하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봤으면 지금에 와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하는 걸 알 수도 없거니



그림 · 최주현

고생통해 생명의 가치 아는것 '자기진화' 주인공은 자기주인이자 空 했다는 뜻

와 알지 못하는 반면에 내가 그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하는 짓이거든요. 마음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고 마음이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이 닦친다 하더라도 고통은 하나도 없단 얘입니다. 그 죽시에 죽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고통이 고통이라고 하니 고통이지 고통은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니 없고 있고를 모두 들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 악도 둘로 보지 말라 이 소리죠. 그

러니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면 그 속에 들은 수많은 생명이 고통으로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각각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음파로 통해서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모든 허공에서도 두루두루 음파로 통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 그 마음 하나 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공부하시다보면 이 다음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다음에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진화력을 가지게 되고 또 진화를 하되 모습도 아주 보기 싫은 걸로 하지도 않고 마음도 잘 해가지고 나오고 또 돌 아나게 착하게 길을 잃지 않고 여여하게 살게끔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인공에다 기쁘게 놓으세요. '확연히 드러난다' 뜻 궁금해요

가는 것을 참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연히 혹은 확연히 드러난다 함은 무슨 까닭인지 가르침 주십시오. 돌 아나게 들고 나는 그 자리를, 그걸 한자리라고 합니다. 한자리라 하면 하나의 개별적인 한자리가 아니라 포괄적인 한자리죠. 거기에서는 과거로부터 무엇이 자기를 진화시켜온 장본인이 바로 출연히 자기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하게 돼야 몸 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도 전부 거저 따라서, 즉 말하자면 행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뜻은 한마음으로 된다는 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쓰는 데마다 그게 한마음이 돼 주니까, 내

가 일일이 마음을 써서가 아니라 이견이렇고 저견 저렇다는 걸 내 마음으로 보고 듣고 알고 그럴 때에 여기서는 벌써 다 알고 그것을 행해 나간다는 얘입니다.

즉 말하자면 들고 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 출연히 자기가 스스로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리드해가고 정신계와 물질계를 돌 아나게 풀리게끔 길을 인도하는 거죠. 다 인도하게 되면 자기도 없고 스승도 없고 모두가 없이 자유권을 얻는다는 얘이죠.

'하나가 된다' 무슨 뜻인지요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일체가 주인공의 나뭇잎이라면 모두가 주인공공의 모습일진데 하나가 된다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마음내는 사람과 마음을 내고 움직여가는 사람이 붙어있습니까? 하나죠. 하나니깐 그 하나 속에서 자기를 발현해 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를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인 줄 알아요. 정신계의 보이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그런 데는 생각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그 보이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기에서 자기를 리더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 나와 돌 아나게 상통한다면 서로 이렇게 뜻으로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나는 시자인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요. 자기 심부름꾼을 진짜로 공부 가르쳐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빼아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비난을 해요. '아이고, 뭐 그까짓 것...'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돌이 아니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한마음이 된다면 이 세상을 다 한테 합쳐도 하나로 구성돼서 하나로 돌아가고 나중엔 그 하나로 없게 됩니다.

지금 지구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이 마음이 문제예요. 물질세계에만 치우쳐 정신세계를 몰라라 하기 때문에 같이 이어지질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고 길을 제대로 걸지 못하죠.

무심으로 행하는 도리

'나' 가 없음이 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심으로 행하는 도리에 밑

14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 긴 깨달음

작은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기,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 제1권 * 행복의 문을 여는 이야기
- 제2권 * 사랑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
- 제3권 * 수행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

행복 · 사랑 · 수행 · 지혜 · 죽음이라는 삶의 다섯 가지 주제를, 불경(佛經)과 고서(古書)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배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새로이 조명해 봅니다. '바라만 봐도 복이 오는' 아름답고 귀한 변상도(變相圖)와 함께 이야기 하나하나에 깃든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노라면, '하나뿐인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미래 엮음 200쪽 내외 각권 4,500원

2월간색 1월간색 3월간색

오색시리즈(전5권)
제4권(하안책) 『지혜의 길로 이끄는 이야기』가 곧이어 출간됩니다
제5권(하안책) 『죽음의 재를 태우는 이야기』

도서출판 한세 전화: 02)3219-6441 팩스: 02)653-4611

부처님, 제발 용서하십시오.

현재의 시간

임재수 법사와 함께 가는 인과응보 여행

모든 죄를 불사르고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번뇌에 갇힌 모든 중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알게 모르게 쌓고 지은 업장(業障)을 과거·현재·미래 삼세(三世)의 모든 부처님께 이렇게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발 용서하십시오' 적어도 이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업(業)을 스스로 뉘우치고 부처님 회상(會上)에 나아가 참회 하십시오

◆제 1장, 하늘이 슬퍼할 열 가지 죄
◆제 2장, 저주받아야 할 열 가지 죄
◆제 3장, 용서받지 못할 열 가지 죄
◆제 4장, 깨도 용서 못할 열 가지 죄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제발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마흔 가지의 죄목을 일일이 조목조목 살펴하였다.

관음특수정사리즈 *법보시용 주문은 특별 할인하여 드립니다.

우리말 금강경	102쪽 / 값 3,000원	우리말 백백대합회문	80쪽 / 값 2,500원	불교 성가집	385쪽 / 값 6,000원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	102쪽 / 값 3,000원	우리말 지장보살본원경	338쪽 / 값 6,000원	어린이 천불가	22쪽 / 값 4,000원
우리말 불설아미타경	66쪽 / 값 2,500원	우리말 원각경보안보살장·팔왕경	86쪽 / 값 3,500원	불교성경	328쪽 / 값 6,000원
한문 불설 아미타경	73쪽 / 값 2,500원	예불천수경	83쪽 / 값 3,000원	천수경	286쪽 / 값 5,000원
우리말 천지발양신주경	57쪽 / 값 2,500원	관세음보살보문품경	71쪽 / 값 2,500원	불교문답	286쪽 / 값 2,000원
한문불설천지발양신주경	60쪽 / 값 2,500원	우리말 지장경	239쪽 / 값 5,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관음출판사